

# 장동호 전주교대 교수 '정년퇴임기념전'

7월까지 전주 기린미술관서  
'입자, 생성, 창조, 소멸' 개최

전주 기린미술관에서는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자, 생성, 창조, 소멸이라는 주제로 전주교육대학교에서 23년간 교직활동과 작가 활동을 겸한 장동호 교수를 초대한다.

장동호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6년 전북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시각예술가이다.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부터 현대 양자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최첨단의 근원적 단위인 입자를 화두로 삼아 작품을 만들었다.

물질의 시원과 인간 내면세계의 본질을 예술 철학적으로 통찰하고 시각화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명한다.

장동호 교수는 대지 위에 정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표면 아래에서 무엇이 요동치는 미시적 세계의 역동성에 주목해 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주적 질서의 절대적 틀을 상징하는 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법도 안에서 거대한 에너지를 지닌 입자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창조되며, 나아가 변화의 법칙에 따라 소멸의 순환 궤적을 1, 2, 3관을 통해 나타내 보인다.

이번 작품들의 조형적 다채로움은 작가가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매체인 자작나무 합판의 단단한 질감에서 비롯된다.

작가는 수많은 반복되는 수행적 작업을 통해 나무판 위에 큐브 모양의 입자들을 정교하게 깎아내고, 그 경사면과 틈새마다 스테인과 아크릴, 천연 바니시를 치밀하게 스며들게 했다. 캔버스 위에 촘촘하게 수놓아진 노란, 핑크,



생성

연파랑, 적색과 청색의 다채로운 색채 변주는 단순한 시각적 자극을 주는 환형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물질세계의 118가지 원소가 지닌 고유의 빛깔을 조형적으로 기록한 물리적 궤적이자,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열정, 소망과 배려 같은 영적인 성품의 알갱이들을 시각화한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회화의 숭고함과 부주의 입체적 존재감을 동시에 획득하는 독창적인 혼합된 단색화의 정수를 보여 준다.

20세기 서구 본질만남기(Minimalism)가 추구했던 차갑고 기계적인 망의 반복, 그리고 한국 전통 단색화가 지닌 노동 집약적인 수행적 유산을 동시대적 관점에서 해체하고 재구성했다.



창조

기린미술관 이현옥 관장은 '이번에 특별하게 보여주는 입자들의 향연은, 불신과 소외로 파편화된 현대인의 마음에 깊은 영적 각성과 존재론적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시원과 만물이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생성하는 계절, 영혼의 고통이 교차하는 경이로운 예술적 탐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고 이야기한다.

장동호 교수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교에서 미술교육 석사학위를 마치고, 츠쿠바대학교에서 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부터 전주교육대학교에서 23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이번 8월에 정년 퇴직한다. 개막식은 7월 1일 오후 3시 기린미술관에서 거행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옛이야기도서관은 올해도 전주지역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기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야기보따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어린이에게 전하는 '이야기보따리'

전주시 옛이야기도서관, 보육기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옛이야기도서관은 올해도 전주지역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기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야기보따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옛이야기 특화도서관인 옛이야기도서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원활동가 이야기보따리단이 맡아 운영하며, 환경동화책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보내야겠어'를 비롯한 다양한 그림책을 활용한 책놀이와 엽서 색칠 등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이야기보따리 프로그램은 만 3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오는 7~8

월 중 매일 8회씩 총 16회 운영될 예정이다.

1회당 최대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동일 기관에서 신청 시 기간 내 최대 1회까지만 접수 가능하다.

보육기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옛이야기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이야기보따리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 보육기관은 안내문을 참고해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옛이야기도서관(063-230-1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 전 세계 출판·콘텐츠 기업 한자리에

31개국 200개 기업 참여 '케이-북 저작권마켓' 개최

한국 출판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거래 행사인 '2026 케이-북 저작권마켓'이 개막했다. 전 세계 31개국의 출판·콘텐츠 기업들이 한국을 찾아 국내 출판사와 대규모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케이-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2026 케이-북 저작권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케이-북 저작권마켓'은 국내 출판 콘텐츠의 도서 수출과 지식재산권(IP)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

내 최대 규모의 출판·콘텐츠 기업 간(B2B) 상담 행사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 출판기업 100개사와 해외 출판·콘텐츠 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총 1,850여 건의 1대1 맞춤형 수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수출 상담 외에도 전문가 컨설팅과 참가기업 간 교류 행사 등이 마련됐으며, 해외 참가사에는 언어권별 통역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참가기업들이 실질적인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설명회와 해외시장 세미나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열린 행사에서는 국내 99개사와 해외 98개사가 참여해 총 1,708건의 상담과 약 8,620

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통해 다수의 해외 저작권 계약도 성사됐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적인 출판사들도 대거 참가했다. Penguin Random House, HarperCollins, Hachette Book Group를 비롯해 일본의 Shogakukan, Gakken, 이탈리아의 Rizzoli Libri, 프랑스의 Albin Michel, 러시아의 Eksmo 등 글로벌 출판기업들이 참가해 한국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가 국가는 아시아·오세아니아 12개국, 유럽 14개국, 북미·중남미 3개국, 아프리카·중동 2개국 등 총 31개국에 달한다. 특히 과테말라, 체코, 포르투갈, 레바논은 올해 처음으로 참가해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을 높였다.

행사에는 전통적인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트 시본, 온라인 방송사, OTT 기업, 웹툰·웹소설 플랫폼, 콘텐츠 제작사 등도 참여해 '케이-북'의 영화·드라마·웹콘텐츠 등 2차 저작물 사업화 가능성을 확대할 전망이다. /오성근 기자

## 전북대·경북대 예술연구소, 문화예술 연구 협력 '맞손'

전북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소장 신은주 교수)와 경북대학교 예술연구소(소장 권도희 교수)가 문화예술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북대는 예술문화연구소가 경북대 예술연구소와 '학술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음악학을 포함한 예술 전반에 걸친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연구조사를 추진하고, 학술정보 및 자료 공유, 연구 인력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이 이뤄진 지난 13일 전북대 예술문화연구소와 국립민속국악원, 아시아음악연구학회, 경북대 국악학과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음악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도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중국·독일 등 각국 연구



자들이 참여해 총 2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신은주 전북대 예술문화연구소장은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양 대학이 협력을 통해 문화 예술 분야의 학문적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 선화당

### 관풍각

### 내아